

‘우주최光 김치파티’…광주김치축제 18일 개막

오는 20일까지 광주시청 광장서 김치체험 사전 예매시 할인혜택
천인의 밥상·셰프푸드쇼 등 다채
식품대전·주류페스타 등과 연계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광주김치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리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한 광주김치축제는 △천인의 밥상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 △우주최광(光) 김치체험 △김장 오락실 △글로벌 김치라운지 △광주김치 팝업스토어 △김치판매 마켓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광주를 찾은 방문객과 해외도시 관계자들의 시청사 및 광장 방문을 이끌어 광주시를 적극 알리기 위해 축제 장소를 시청광장으로 정했다.

‘천인의 밥상’에서는 향아리 통삼겹 바비큐, 김치치즈 삼겹말이, 당근김치 타코, 보리열무 육회 비빔밥, 묵은지 잡채, 김치말이 국수, 김치전 등 30여 종류의 김치요리를 선보인다. 소량으로 다양한 김치와 김치간편식 등을 먹어볼 수 있는 김치편의점도 운영한다.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현석, 여경래,

파브리 셰프와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김치를 소재로 새로운 요리 △갯김치 간장게장 리조토 △대하김치 통새우 고기찜 △맨드라미 백김치 묵밥 △갯물김치 문어 냉파스타를 관람객 앞에서 만들고 100명의 관람객이 시식해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주최광(光) 김치체험연구소’는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백김치 담그기 △배추김치 버무리기 체험 △김치타코 또는 묵은지 김밥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광주김치축제 누리집(kimchi.gwangju.go.kr)과 네이버 ‘예매(광주김치축제 검색)’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상을 걸고 경연을 벌이는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예년과 같이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11일 본선 경연대회가 열린다.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작과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김치축제 기간에 시청 로비에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치판매 마켓’에서는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배추김치, 갯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광주김치 명인 푸드스테이지 △광주김치 팝업스토어김치 △김장 오락실 △놀이해주는 김치맨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열린다.

또 관람객에게 더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도시농부 축제, 씨앗은 우추다’가 18~19일 열리며, 축제 마지막날인 20일에는 장민호, 김희재, 박성운, 강혜연 등 트로트 가수와 함께하는 ‘헬로콘서트 좋은날’이 열린다.

주최회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김치축제는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외국인과 타 지역 관람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광주식품대전, 주류관광페스타, 국제 차문화 전시회, 광주 서창역새축제 등도 함께 열린다”며 “맛있는 김치요리와 다양한 체험 등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5세 이상 고령층 등 대상

광주시는 1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으로, 최근 유행하는 군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 지난 절기 접종 백신(XBB.1.5) 대비 약 5배 정도 높은 면역형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한다. 고위험군 외 일반시민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기간은 1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한 번의 의

료기관 방문을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접종 시기를 통일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11일부터 △70~74세 고령층은 15일부터 △65~69세 고령층은 18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동시 접종할 경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접종 부위를 달리해 받는다. 65세 이상 고령층 이외 고위험군(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은 연령과 관계없이 11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이번 절기 접종은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되지만, 12세 이하 면역저자자는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접종은 사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cv.kdca.go.kr),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환경사랑 미래사랑 프로젝트 성공공유회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이 10일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환경사랑 미래사랑 프로젝트

광주시 제공

성공공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 시장 “청년들 행복한 광주 만들겠다”

광주대 학생들과 현장 소통 꿈·취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광주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은 이날 ‘청춘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대학생들과 현장 소통을 마친 뒤, 광주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그들의 꿈과 목표를 듣고, 광주시 청년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대학생 청년들과 눈맞춤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다

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광주에서 일하며 살고 싶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는 학생의 질문에 “여러분보다 앞서 20대를 겪은 선배로서, 취업문제로 힘든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는 청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청년일경험드림, 광주형청년일자리공제, 청년갭이어 등광주시 청년정책을 설명하며 “광주시는 청년들의 일할 기회, 누릴 기회를 확실히 만들어 이를 정책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하는 등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강 시장과 학생들은 점심을 먹으며 청년정책 외에도 친구 관계·첫사랑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오찬에 앞서 열린 현장대화에서 학생들은 강 시장에게 “저 졸업은 할 수 있을까요?”, “평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광주시 대응책은?”, “글로벌대학 선정되려면?” 등의 질문을 던졌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답변하며,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전남상인회, ‘전통시장 상인의 날’ 성료

도내 114곳 상인 1000여명 참석 목포서 혁신콘텐츠 강화 등 다짐

전국상인연합회 전남도지회는 전통시장 상인 격려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1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전남도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열고 혁신콘텐츠로 사랑받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22년 전국에서 광역단위 최초로 고흥에서 개최했던 제1회에 이어 3회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상인을 격려하고 소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웃음주는 전남상인! 커져가는 지역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행사의 주인공인 전남지역 114개 전통시장의 상인 1000여 명이 모여 ‘상인의 날’ 행사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전남 전통시장 발전 원인을 담은 ‘혁신의 콘텐츠로 사랑받는 전남도 전통시장’ 퍼포먼스로 전남 전통시장 상인

의 미래 비전 제시와 더불어 고금리에 따른 내수경제 위축 등으로 어려운 상인들의 노고를 달래주는 체육대회, 경연대회, 축하공연 등도 펼쳐졌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상인의 날 행사가 앞으로도 상인들의 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쟁력있고 활기찬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의장 또한 “전남도의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전통시장은 이제 시대의 부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을 함께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관련 기관이나 교육 기관이 많다. 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누구보다 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